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오늘은 추수감사절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저녁 찬양예배 후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예배시간에는 추수감사절 특별헌금도 드린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자체 내에서 축하행사를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또 교회적으로도 지난해 교회설립 40주년을 보내며 새로운 자세와 방향으로 발돋움하려는 한 해로 보냈다.

한 해 내내 북한 핵문제로 하루하루를 뉴우스에 초점 맞추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문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다. 대형사고와 강력 범죄들로 인한 실망과 걱정들로 사회 전체가 분위기가 위축되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원로 목사들의 회개운동과 각 기독교 단체에서의 경성과 각성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 오고 있다. 이런 중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헤아리는 지혜들과 이런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런 어려움들이 사회적으로는 정예로운 사회체로의 개혁을 굳건히하고,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되어 찬정한 교회의 모

습으로 나타나는 일에 자성의 기회가 된다
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책망을 생각하며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이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회

당회장 신성종 목사 인도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대입 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열린다. 팔썸 및 앤도에 당회장 신성종 목사이다.

김영길 박사 특강

김영길 박사(창조과학회 회장 역임, 한동대학교 총장)가 대입 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오전 10시 30분 부터 선교관 지하 2층 메추라기홀에서 실시한다.

소망부 개교 20주년 기념축하잔치

교회학교 소망부(부장 김진채 장로)가 개교 20주년을 맞는다. 소망부는 1974년 8월부터 모이기 시작, 1974년 11월 기본 조직을 하고 모이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부터 교육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정식 교회학교로 출범했다.

만 70세 이상의 학생들이 11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공부하는 소망부는 재적 600여명에 매주일 400여명이 출석하여 교육과 교제와 친교를 나누고 있다.

개교 20주년을 맞으며 열리는 기념축하잔치는 유치부 어린이들의 특별순서와 크로마하트 연주단의 특별연주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II부 예배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찬양위원회(위원장 김은호 장로)에서는 II부 예배사에도 찬양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기 위하여 II부 예배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

단원 자격은 관현악 전공자로 세계 교인이거나 하며 학생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11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입단원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다.

주님의 사랑 그지없어라

어지신 여호와
우리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지극히 높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홀로 엄청난 기적 베푸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놀라운 지혜 보이셔서 하늘을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불위에 땅을 두루 펼치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한 빛을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낮을 다스리라 해를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밤을 다스리라 별과 달을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우리가 비천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우리를 원수들의 압제에서 건져
자유롭게 하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살아있는 온갖 피조물에게
먹거리를 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세례식 교회는 금년들어 마지막 성찬예식을 지난 주일(11월 13일) I, II, III, IV부 예배시간에 가졌다. 이날 성찬식에는 온 교우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앞으로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11월(금)에는 세례식(사진)을 가졌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을 보낸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 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등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 부서, 기관,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1994년 11월 27일(주일) 17:00까지

·접수시간: 매일 오전 9:00 - 오후 6:00

·접수장소: 사무국 (총무과)

·접수종류: 성탄선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기타.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선교위원회 사무실 (TEL 552-8200 (교) 355-8 번)

사 람들을 보면 평탄한 길에 작은 구렁텅이만 있어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험난하고 캄캄한 길에서 조그만 불빛만을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오막살이에서 살지만 감사하면서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절반쯤 담겨 있는 똑같은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 컵이나 남았다'라고 감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 컵밖에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보고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떠있는 먼지를 보고 불평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본문은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예배를 드린 내용입니다. 본문은 당시 감사예배의 규모, 장엄함, 감사의 정도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감사할 때에 그 즐거움이 극가적으로 확대되었고, 찬양을 통한 감사로 인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까지 들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기적을 낳고, 찬양을 통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한 번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불행을 낳는다. 감사는 찬양을 낳고, 찬양은 기쁨을 낳고, 기쁨은 행복을 가져온다"

1.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1)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기 때문입니다(출 23:14-16; 살전 5:18).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고 했습니다. "너는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출 23:14-16)고 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입니다. 과거에 받은 것을 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마음의 음악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은 사랑과 감사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렘 1:6).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파디(PD) 한 명을 뽑는데 수백명이 몰려옵니다. 그 수백명을 물리치고 뽑혔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귀하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뜨거운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3) 모든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입니다(대상 29:12).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와의 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대상 29:10-19). 다윗은 심지어 감사할 마음조차도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4) 앞으로 주실 약속된 축복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에 준해된 모든 처소와 상급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요 14:23). 미약같이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역과 그의 높으신 인격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2. 감사할 때의 결과

감사는 감사 자체가 바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불평을 말하지 않고, 감사할 때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할 때 남에게 인색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감사할 때 친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의 구체적인 몇 가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시 50:15:23).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4, 15).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여러분의 매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혹시 '주세요, 주세요'의 연발은 아닙니까? 이 감사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 번 점검

충현강단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느 12:31 - 43)



신성종

<목사·담회장>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2)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매일 달라고만 하는 자에게는 주고 싶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자꾸만 주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피츠의 시가 있지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이 필요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매치는 곳으로 우리는 인도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3) 감사할 때 기적이 창조됩니다.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어느 소녀의 감사기도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른손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찬송게 하신니 감사합니다' 이 소녀의 감사기도를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소녀만큼 받지 못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소녀에 비한다면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우리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감사가 생기고, 감사할 때 자족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감사를 회복하여 지금의 생활에 자족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자족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창조됩니다.

3.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최근에 바이러스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바이러스는 간염은 물론 아주 무서운 수많은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독감바이러스보다도, 간염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바로 불만바이러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가정 이 깨지고, 기업이 도산되고,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그런데 이 불만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만이 불만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소망,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우

리의 요구는 자꾸 늘어만 가고, 불평은 더 많아지기만 합니다. 해방 전에는 집, 직업 등 18가지 조건만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했는데 70년대에는 72가지가 있어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96가지가 있어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가지 조건으로 많아질지 모릅니다. 496에다가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하고, 10,000을 곱해도 아마 인간의 요구조건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를 보면 "나는 여호와의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8)라고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을 바라보지 않고, 밭의 것만을 보고 밭의 것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어찌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요, 구속자시요, 인도자시요, 심판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1)라는 말씀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이것이 바로 실낱만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4. 감사하는 방법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감사가 나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감사했고, 욥은 시험을 당하여 큰 손해를 보고 감사했고, 다니엘은 살벌한 환경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빠라기는 우리는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즐거운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 물질을 통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찬수감사헌금은 우리 마음이 표현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3) 봉사를 통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봉사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말과 봉사의 말에 겹칩니다.

(4)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영어의 감사하다(thank)라는 말은 생각하다(think)라는 말과 어원에 같다고 합니다. 생각해야, 감사할 것이 생각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자급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결은 고마움을 느끼는 날이고, 고마움을 보답하는 날이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결심하는 날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행복하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도 서리집사 명단

1-1 교구

· 연임(남집사)

곽진형 김점수 김대웅 김명중
김복학 김삼열 김승기 김용조
김일주 김정찬 김종린 김창기
김한혜 김형만 김형정 노영한
류중요 박노택 박병선 박태근
박해권 박홍남 방창석 손종원
양한원 유두현 유성남 윤선한
윤정흠 윤해균 이덕규 이무열
이부성 이상복 이상재 이승득
이지환 이찬재 임형호 장홍석
정규호 정인식 조석구 주영선
지영일 최영인 최준석 최진성
허남철 홍순형 황선용

· 신임(남집사)

구원섭 권 무 박종구 양병규
엄규용 장기락

· 연임(여집사)

강순금 강신순 강옥련 강종예
고득순 고지현 광계자 권미예
권정자 김경숙 김경순 김경순
김미자 김분연 김순남 김순자
김양녀 김양남 김영숙 김영옥
김영춘 김영희 김오례 김용배
김은희 김장숙 김주분 김화선
김희술 남궁금수 박명자 박숙희
박원자 박정숙 박진혜 박철순
방충선 방희정 서병숙 서혜경
송윤진 신명자 신분남 신연임
신재금 심호섭 안정순 양미옥
여옥남 우경자 유기림 유동희
이경미 이경숙 이길순 이명숙
이명주 이소현 이수인 이수자
이은숙 이정미 이정숙 이정애
이정옥 이현순 이혜숙 이혜심
임문자 임애규 임통개 임희순
장순희 장정훈 전명식 전춘옥
전철순 정임순 정호진 천수자
최영옥 한명숙 한오례 홍인숙
황진순 황혜신

· 신임(여집사)

강 옥 김명희 김소애 김수자
김현실 손영현 이병현 임영신
정순경 조정희 최종란

1-2 교구

· 연임(남집사)

권택진 김공식 김기완 김남식
김덕호 김선기 김신국 김진호
김환호 박용한 박용호 박창식
백봉학 소재철 송용옥 송인호
양규석 오봉식 오철민 유재훈
이달옥 이영희 이인배 이정태
장영수 전삼진 조창선

· 신임(남집사)

강진수 김상동 김제호 김종국
김태규 박종철 양근식 여운승
이부일

· 연임(여집사)

강신숙 강준자 구부희 김계희
김미자 김영희 김옥산 김정자

김춘자 김화순 나입자 남경자
노계운 노분선 노정자 류순옥
박난용 박명자 박성엽 박성자
박안숙 박정애 반연숙 배정숙
백영자 서경희 성명선 송병전
송선옥 신경섭 신영자 심용자
심필순 안옥자 양삼순 염경자
유성자 유인화 유혜선 윤병순
윤부기 윤영자 이국숙 이근덕
이미경 이설희 이순희 이양호
이영래 임길영 장순양 장희수
전옥순 정문대 정복득 정영숙
조경순 조미자 조해자 주정원
지경애 최금중 최양숙 최평근
최향월 최현숙 한정희 홍경선

· 신임(여집사)

김수남 서정희 성경옥 이동숙
이명금 장금자 정연숙 정하숙
최정자 하호순 황 자

2-1 교구

· 연임(남집사)

강남석 구재완 김남채 김보원
김선일 김성용 김수일 김신경
김은철 김인규 김환배 박남수
박병택 박종규 박창서 박현관
백의현 백해연 송근태 양현중
여운철 엄낙서 오수호 오제일
우종구 유국철 유상태 유장평
이광렬 이금열 이동식 이병영
이보신 이수철 이영환 이종택
이호일 장승규 전성동 정기원
정위식 정학주 최광철 최은호
최한중 홍금호 홍택기

· 신임(남집사)

김배규 김학준 김한근 신전수
정 건 황영철

· 연임(여집사)

김경숙 김경희 김국자 김금숙
김금순 김봉자 김상인 김상희
김성숙 김수경 김수자 김영숙
김영아 김옥기 김옥순 김옥희
김원화 김은양 김정희 김지은
김행자 김현정 김효정 남영자
노승연 류영숙 문용자 문인순
박복덕 박영숙 박은숙 박정란
박현숙 박화서 백수옥 서경희
서금자 서미라 서영남 설복연
성부자 소상훈 신동학 신미자
심인주 안강옥 안정자 안지영
양군자 양하선 여중녀 오영숙
오영숙 오영혜 유강자 유정자
유희자 윤명자 윤정희 윤지순
윤희경 이순민 이순옥 이승순
이승연 이영숙 이영희 이옥숙
이주현 이주형 이한복 임대여
임성남 임숙자 임지현 임진옥
임홍숙 장문자 장신자 장정자
장혜숙 전하숙 정귀옥 정명실
정미란 정수경 정순덕 정영래
정옥선 정옥화 정정순 정희선
조미희 조숙진 조연숙 주순희
차혜숙 최세화 최수자 최숙경
최태분 한구자 한 숙 한순임
허연옥 홍원실 홍정호 황인숙

· 신임(여집사)

김성은 노희래 류태숙 박영숙
박정희 오혜숙 이영희 전방자
정희자 조성옥 하민자

2-2 교구

· 연임(남집사)

강예모 김규태 김기두 김명집
김문섭 김영달 김영진 김용산
김운섭 김재성 김창호 김형철
김홍래 라상찬 박경열 박남수
박상대 박승배 박영석 배봉식
배한웅 안세현 양승길 엄복섭
오동건 윤순규 이길재 이두희
이상해 이석재 이승구 이영재
이정관 이흥기 이효상 임점택
전종익 정인선 조운성 조인형
최광덕 최대주 한광조 함용식
황학규

· 신임(남집사)

김광중 김현주 문상식 박창대
오규중 조홍연 황영선

· 연임(여집사)

강기옥 강신자 광노희 권미선
권영재 김경자 김계수 김명숙
김명순 김봉애 김선영 김성순
김성옥 김성자 김성자 김연순
김영민 김영숙 김영자 김옥순
김용신 김은숙 김은자 김지순
김현승 김해정 나순애 노순옥
문인란 문정윤 민경애 박명숙
박순희 박영영 박옥자 박정수
박정숙 박정옥 박혜순 박희숙
백숙현 성열순 손공남 손영희
송문영 송은주 신정숙 심정래
심해숙 안경덕 안금자 양영숙
여갑선 오양옥 옥경옥 유순원
유승옥 유옥순 유인숙 유일옥
유정자 윤 순 윤영희 윤이임
이경옥 이길심 이상동 이옥자
이인향 이정남 이정숙 이효순
이훈숙 임정일 장숙자 장정연
전성실 정길자 정미원 정복순
정순옥 정정자 조순남 조운수
조정희 조종남 주현자 지연희
최동옥 최영희 최지선 표봉애
한박선 한영란 허종순 현혜숙
홍경숙 홍계순 홍권자 홍복기
홍성순

· 신임(여집사)

김귀자 김연화 김정선 김현자
박소영 윤채윤 이영경 정순옥
조미순 조총자 조순호 조영주
조태일 최근준 한홍래

3-1 교구

· 연임(남집사)

권백용 권영목 김달현 김만수
김상택 김용수 김종옥 김종학
김창국 김창남 김태진 김현식
노수식 민재환 박경용 박광석
박남주 박석두 박재현 박종운
백남식 송영준 안상익 양기수
양승길 오철환 이건호 이상호

이영철 이창환 임광신 장동영
장충균 전병남 전종일 정문성
정성교 정세용 조기택 조동기
조석남 진학래 최남희 최만복
최성조 최수영 최홍규 한보경
한천길 현승조 황인주 황재현
황호철

· 신임(남집사)

고연호 김종서 김주간 김창호
김형태 노규식 백봉선 안상직
윤태호 이명익 이희권 전영수
최성환

· 연임(여집사)

강미숙 고남분 고임순 구영희
김경희 김광연 김덕실 김명자
김명희 김문자 김미리 김보옥
김성희 김승옥 김영숙 김영옥
김영혜 김용숙 김월매 김은순
김춘식 김춘옥 김현순 김현옥
김효순 김희선 남영순 남옥순
노정숙 노정숙 류동숙 박갑래
박명희 박성순 박원익 박윤주
박점순 박정희 박현혜 배복자
변옥선 변옥희 서양숙 손옥자
신명순 심재현 심현경 안정자
오혜숙 유기순 유남순 유혜숙
유효순 윤병연 윤자옥 윤정희
윤향중 이경숙 이계자 이귀남
이무순 이숙희 이영숙 이영순
이영의 이옥숙 이옥순 이희순
임경순 임복래 임신자 임학선
임혜경 장성실 장옥순 전길복
전제숙 정명자 정상순 정옥자
정정임 조옥례 주순정 진주연
차 회 채자연 최무선 최인상
최종란 하두연 한금자 한명순
홍명희 홍명희 황명숙

· 신임(여집사)

강숙희 강승숙 권순희 김규식
김성희 김순자 김은주 문성애
송영복 송인복 송행자 안순옥
오순영 유현숙 이가옥 이경표
이남순 이명애 이연희 이추자
천희정

3-2 교구

· 연임(남집사)

곽동주 권순탁 김광만 김동규
김인회 김영락 김영암 김영연
김인호 김은섭 김재원 김재홍
김종춘 김현경 김형중 김홍찬
김희선 박규연 박준배 박진용
봉태열 소재옥 손건국 손정수
송경수 송재현 신현호 심공식
오현규 유동호 유승호 윤석현
이상범 이승계 이영철 이인원
이재철 이진목 이현상 장상길
장세훈 정순팔 정영현 조낙준
조성훈 조영운 최경운 최경하
최규환 최남하 최상기 최종배
한경수 한윤석 허중문 홍종락

· 신임(남집사)

강옥석 김동원 김영호 변재규
석승덕 신종기 이용효 전길수
조휘남 최대성 최영철 최정렬
최춘흠

· 연임(여집사)

강명옥 강영희 강옥희 강은희

고순덕 고윤희 권명희 권영교
권효중 기현주 김경자 김광순
김귀향 김금순 김병순 김복자
김숙연 김순옥 김순이 김순자
김신희 김애영 김영구 김예순
김유순 김정림 김정희 김종남
김향신 김현수 김혜숙 나순애
남 회 류향란 문인자 민병인
박경애 박복순 박봉연 박애숙
박애영 박영숙 박인애 박종순
박찬숙 박창숙 박춘자 배경자
배은경 백광희 선순례 성미자
손성옥 송옥진 신은숙 양신자
오말녀 오정임 오희승 유명례
유은희 유홍자 윤춘심 윤필순
이규숙 이규숙 이복희 이성숙
이여옥 이연순 이영애 이영애
이정숙 이정운 이정자 이정현
이정희 이해영 장정숙 전봉자
전유강 전현선 정경희 정경희
정은희 정정한 정태영 정혜인
조수민 조숙성 조연경 조월영
주영자 지영순 차창숙 최 규
최순희 최영순 최영이 최창현
피순복 한성숙 한정희 함경애
함자옥 홍현기 황치희

· 신임(여집사)

강혜자 김경순 김애순 김은숙
김정자 김형미 김혜경 노경임
라순진 민현숙 박성자 박애덕
안정옥 유순규 이옥숙 이지영
이혜경 임부자 최복희 최재희
한기희 허정애 황영옥

4-1 교구

· 연임(남집사)

권택주 김도현 김병건 김석제
김원주 김정표 김제건 김진섭
김찬옥 김한원 라승은 문효식
박원화 박창규 박필래 백운홍
백 종 송병옥 송석주 신건중
신현창 안성식 안중택 양희용
오순도 유종석 유형근 이동건
이상영 이원상 이원영 이인용
이재균 이재승 이정구 이정신
이태균 이호균 이호연 임순배
임인호 장세기 전대연 정대원
조형수 진경문 최동규 최선두
최원길 최종옥 한무부 허 중
홍이표 황충중

· 신임(남집사)

김신일 신근석 옥인수 우진환
이 상

· 연임(여집사)

김정자 강길래 고순산 구덕임
구인숙 권 정 김경래 김경숙
김경희 김명선 김명숙 김명지
김명환 김봉숙 김석순 김성도
김성숙 김성주 김송자 김영옥
김영은 김옥선 김인자 김점늬
김정래 김정선 김정선 김정순
김정애 김종수 김하경 김현숙
김희숙 나희대 남양희 노경숙
마현미 문애경 박경자 박길녀
박복숙 박승애 박영자 박종영
박종임 박지현 방휴정 백순자
백영기 백천옥 서귀순 서정희
서춘실 손미라 손숙자 송숙자
신명길 신정순 신차식 심정자
안숙자 안순복 안정혜 양영희

양제순 오명자 오영란 오윤자
원용숙 유영희 유영희 유춘남
이금선 이 단 이 란 이미경
이선옥 이용희 이윤경 이정미
이정숙 이종순 이춘희 이홍자
임순복 장원옥 정정수 정태옥
조순례 조유자 조희영 주영희
차정연 최명초 최은희 허은숙
홍화숙 황주옥

· 신임(여집사)

김선희 김순애 김혜옥 박영옥
손영란 심영희 이남숙 추순옥

4-2 교구

· 연임(남집사)

강인수 공창호 권오준 권중철
김남성 김대진 김상남 김상열
김석근 김성옥 김용조 김인평
김제일 김진옥 노정화 박광래
방형인 송삼규 신광철 신동기
신선길 안희정 양은식 엄균영
여인원 오준근 이동성 이미주
이상복 이석복 이재순 이준식
이지은 이찬옥 이현구 이호식
임채봉 장석환 장주형 정완모
지정록 최우근 최정희 허재창
허형철 황용조

· 신임(남집사)

김원규 김윤문 김진홍 박인영
산동범 안영철 장병택

· 연임(여집사)

강 순 강정옥 강정희 강현숙
권경애 금호순 김경희 김 란
김명자 김명주 김명화 김선옥
김선자 김성희 김수남 김숙희
김순재 김영순 김영임 김옥남
김옥영 김옥자 김임순 김재명
김정운 김지연 김진희 민병란
박경자 박귀순 박명자 박미순
박성남 박숙경 박영희 박인자
박임순 박진민 박현숙박혜영
방신자 변춘길 석금숙 성춘순
손명민 송경희 심효순 안행자
유경아 유선애 유영순 유영자
유인순 유혜자 윤경중 이명재
이무강 이복경 이상옥 이선화
이성애 이순옥 이순일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희
이창순 이천애 임경옥 장보윤
전순배 전옥미 전현신 정귀임
정옥남 정정자 조남숙 조숙임
조영선 조용기 조항순 채은실
채혜선 최영실 최현화 최태희
최희숙 편이범 허복용 한혜순
한희숙 허은자 허인순 허칠생
홍승순 홍애정 홍은기 황상화
황전순

· 신임(여집사)

김귀복 김수경 박경혜 박남희
안선애 윤숙상 이금숙 이동연
이혜주 권경순 임명희 황정갑

5-1 교구

· 연임(남집사)

강경의 강봉기 김기태 김대철
김수연 김이수 김이호 김인호
김재윤 김종태 김준선 김창복
김태홍 김희식 남용철 문영규

문호용 박명덕 박순규 박영식
박종태 백종석 손무길 손영섭
송수일 송인섭 송지호 신정호
안지홍 양병진 양삼주 오병두
윤석규 윤종섭 이건용 이명규
이배근 이승용 이영희 이용호
이인수 이종석 장영순 편무산
한병구 한호철 허 오

· 신임(남집사)

강석화 강 훈 권태선 김영진
김하주 노근택 안문극

· 연임(여집사)

강정린 고진순 박연옥 권혜연
김경순 김경희 김남숙 김순례
김승희 김영기 김영선 김영숙
김영숙 김영실 김영옥 김옥순
김정자 김정화 김학인 김학희
김화옥 나영화 나정순 노경숙
노승희 박광자 박금식 박양자
박옥례 박희승 백근너 백근순
성지현 신숙재 심재선 안춘자
안호선 안희자 양은옥 오길자
오영자 오정미 유영애 유재옥
이남숙 이덕순 이동현 이문구
이민원 이봉순 이성희 이소규
이순덕 이신자 이인숙 이춘영
이혜숙 장연춘 전복실 전숙영
전옥순 전정희 정귀애 정은숙
정찬실 조강자 조춘자 표복심
한성수 홍경숙 홍영숙 황명하
황현호

· 신임(여집사)

남미현 노정자 독고정란 박혜옥
윤영복 한덕순 한영옥 허정희

5-2 교구

· 연임(남집사)

강석준 권용동 김경식 김관형
김기수 김두환 김영일 김인철
김장진 김중수 김종은 김철남
민명옥 민백기 박주하 변정국
변태수 설창경 손창열 신상수
안백희 안준태 안중섭 열광호
오창명 원성수 이강근 이근호
이동규 이명희 이민호 이선만
이성남 이창근 이희직 정재영
조세영 조영구 권옥룡 최수일
최호일 표완식 홍정해

· 신임(남집사)

강호원 강경진 김대홍 김상배
김해연 이영하 이희석 임길순
최홍섭

· 연임(여집사)

강석란 장재열 박병순 관완순
김경숙 김동순 김말자 김명자
김부영 김선자 김정금 김 숙
김순옥 김연향 김영란 김영미
김영언 김옥자 김옥희 김자용
김재윤 김정란 김정숙 김지영
김희숙 박귀자 박명숙 박문순
박영여 박옥선 박현순 서경자
성기동 성길순 손순자 송혜경
선복걸 신헌순 윤남순 이경애
이경애 이명숙 이명진 이부용
이성옥 이순언 이연순 이옥순
이용래 이경숙 이정순 이현숙
임정숙 정부희 정순봉 정정란
조순림 조영숙 차의숙 최말순

최미희 최숙진 최제순 최현자
홍갑순 홍영분 홍현희

· 신임(여집사)

김성숙 김형순 김영혜 김옥자
김종순 배철만 이성자 이재덕
이화선 정순옥 최정자 하숙혜
홍영월

6-1 교구

· 연임(남집사)

갈병무 강원재 강희철 고상건
고현기 공석생 권영주 권영훈
권용성 권 철 길재호 김동립
김성길 김영환 김완주 김이경
김인수 김재춘 김정필 김종민
김진식 김학래 김흥기 박종울
박창근 배춘식 백상의 변원기
송진국 신기만 양효민 윤상재
이관호 이명국 이병진 이영일
이요섭 이용범 이인규 이주훈
이준경 이중환 이진수 이진호
이해철 장인희 전승훈 전은배
정동우 정영민 정창길 조성수
조종환 조홍진 지규성 지동준
최준호 최창준 하상구 한민수

· 신임(남집사)

고두만 윤병훈 이정탁 이 준
임동재 장효인

· 연임(여집사)

강명숙 강성자 강영자 강옥생
강정일 강정희 강현자 고명진
고희자 권정애 김병희 김복수
김위자 김점순 김정숙 김종희
김춘남 김춘복 김태화 김한선
남궁숙회 노화선 류제화 문경숙
문경숙 박선숙 박인덕 박정윤
백혜옥 서기순 서혜경 서혜덕
석귀수 손유비 송영록 송정옥
신평식 안숙자 안태숙 오민숙
오영희 오희숙 유인영 윤경춘
윤숙희 이금자 이복희 이상화
이순자 이순화 이영수 이영숙
이정애 이춘재 이형숙 임영신
정옥순 전경자 전성희 전영화
전은실 정미자 정영혜 정현봉
조양덕 조영혜 주영숙 채홍연
최복선 최수경 최하자 표복자
한숙원 홍순애 홍혜원 황민자

· 신임(여집사)

김경애 김은실 나미영 박귀숙
서수현 원영주 윤선정 은덕근
이삼순 이유주 전금수 조숙희
최현자

6-2 교구

· 연임(남집사)

김경철 김광근 김광근 김성덕
김수일 김영춘 김원구 김일생
김태진 김희태 남궁조 문창대
박영봉 박호용 박희봉 손영섭
염은식 우영택 유영식 윤재춘
이길남 이명종 이상섭 이성직
이영남 정경수 정금줄 장봉순
장석찬 정유필 정영덕 정홍관
조금복 최두철 최삼조 최성국
하영준 한송환

· 신임(남집사)

김수진 김훈식 박찬서 신주홍
이동섭 전병진

· 연임(여집사)

곽도윤 권기순 권수정 김선홍
김순애 김영숙 김윤경 김정희
김태금 김필녀 김현자 김희숙
노성희 동지현 명유진 문정덕
박명란 박향래 박행자 배연식
서명숙 서정자 서정희 송동준
송옥현 신귀숙 양명자 오경애
우명자 유옥련 유효송 이경순
이귀진 이금수 이명숙 이선록
이성강 이승희 이현숙 이형순
임현숙 장철자 전순순 정순자
정향순 조복순 조분자 조성옥
천우숙 최금숙 하만자 하발영
한정화 홍영숙 황완옥

· 신임(여집사)

김인경 안지영 이일성 정연옥

7-1 교구

· 연임(남집사)

강종묵 강창식 강태열 고분진
김광수 김동옥 김은동 김인규
김인석 김인술 김준호 김진규
김전오 김철영 김현철 남중호
동창환 민해영 박정우 박종학
박종현 서길원 손준규 신병호
안창화 오세익 유병열 윤우선
이상배 이상일 이승우 이인줄
이정률 이중원 이중현 이학봉
정상교 정원근 정재운 정춘근
조영철 조준행 최동삼

· 신임(남집사)

김정규 박진환 서동구 정기성
조분수 최동옥

· 연임(여집사)

강영희 공경자 구명숙 김경자
김경희 김귀배 김문정 김봉숙
김생열 김순연 김순영 김영자
김옥희 김옥래 김옥실 김옥연
김은희 김정옥 김정자 김정자
김정현 나영실 노혜경 문봉래
박복순 박선옥 박성희 박순남
박용순 백금옥 백옥심 박정숙
서금순 신일순 신정호 안정선
안중순 양정원 양혜원 예환년
여정자 오창수 유순덕 유정지
이경희 이교숙 이근자 이달순
이명숙 이미란 이순남 이애나
이애영 아연화 이옥자 이홍선
이홍자 장선자 정영숙 정정금
정정희 정진순 조윤필 조해경
차명선 최순자 최영숙 한성희
허창인 홍소자

· 신임(여집사)

김윤희 송미은 송미은 송미은
엄정자 유승자 이영자 이옥연
최은경

7-2 교구

· 연임(남집사)

권기태 권길동 김구현 김명운
김재철 김정조 김종만 김철환
박병기 박용진 최영식 안승현
배종백 오동환 유용규 이기찬
이은봉 이정환 이춘평 전재현

전인길 정연봉 정영길 정현봉
최윤식 함철주 황기용

· 신임(남집사)

김홍배 신영철 전명수 최승철

· 연임(여집사)

강상아 강승연 박진희 권중희
김경숙 김경은 김경자 김경희
김덕순 김도화 김두연 김복자
김부덕 김순옥 김재순 김정에
김춘자 김현자 남숙자 마경자
문금안 문제순 박경련 박복순
박부강 박성련 박신자 박애실
백현재 봉미자 서종남 소길순
신경순 신금순 심영순 안윤녀
양길순 우명선 유지춘 윤재선
이경순 이경자 이근자 이귀자
이삼세 이서륜 이선녀 이수자
이숙자 이순복 이아연 이영순
이영옥 이옥순 이은단 이은옥
이춘자 임선애 임정자 임정희
장복배 장현순 정순이 정영희
정 옥 조완희 조정숙 지아연
최길자 최순희 최영희 최인선
최춘희 태명자 한명자 한 복
한숙영 한애현 한연순 한영애
한정옥 한해영

· 신임(여집사)

김정래 김정래 김현옥 노봉순
박상배 박재귀 안명숙 이명희
이점순

8-1 교구

· 연임(남집사)

권시호 권영진 김경환 김성남
김성호 김영근 김영선 김원섭
김인관 노기철 박길홍 박선홍
박종옥 서경준 서연식 송효종
신원동 안동희 예정호 우기섭
우중근 윤상규 이근수 이정식
이종원 이춘만 이춘희 임영수
임춘식 정영환 장대석 조경행
조병복 최원일 하재명 한종구
한중현 허광만 허명호 홍치순

· 신임(남집사)

백두일 양승천 이용수 정찬국
조구만 주낙진

· 연임(여집사)

강금자 강석분 고춘자 구수진
김경애 김달수 김대희 김덕해
김명자 김명희 김봉덕 김석순
김연태 김영숙 김용귀 김재순
김제순 김정단 김정숙 김정순
김 칠 년순자 남은희 문경화
박신남 박재옥 박춘옥 박태선
백순례 백정순 백진옥 손양옥
송양원 송화정 신경순 신경실
선선원 오인숙 은팔래 이경자
이정희 이명자 이미애 이순남
이순이 이순자 이영순 이은선
이은옥 정정옥 정정자 정숙자
정영배 정희공 조숙영 조옥환
조옥희 최명희 최선옥 최영옥
최종남 함미자 허옥남 황광옥

· 신임(여집사)

김세향 김희분 박경숙 박춘성
송포숙 송숙희 안정숙 오은경

8-2 교구

· 연임(남집사)

강광옥 고광국 고문봉 고한배
권석태 김교동 김규태 김상철
김세홍 김열환 김영록 김영봉
김영주 김영환 김용태 김종규
김종원 김종현 김주현 김형덕
남은근 박병은 박상권 박완용
박한규 손진성 송영주 송한성
신명성 안병호 안선광 엄기정
염동만 유경일 윤동인 윤석규
이병석 이형찬 정대은 정동훈
정재모 정재복 조규하 지성광
차정각 한관수 홍석표

· 신임(남집사)

김면영 김철수 박영선 심용걸
최광호 최락중 최종영

· 연임(여집사)

강석주 강영옥 강옥련 강현숙
고영숙 고은경 공순자 광옥순
김광숙 김명순 김수영 김숙자
김순덕 김순희 김양자 김연옥
김옥동 김월선 김윤숙 김인옥
김정식 김종성 김종순 김종희
김학천 김현미 나순순 문순안
문현정 민명식 박금숙 박순례
박애희 박연옥 박영숙 박재임
박태남 방순애 서영자 소복남
송순애 송정순 송정자 신귀옥
신종연 심금숙 안옥자 엄태임
오광순 오순희 오지현 우태보
유은실 유재춘 유효균 이계옥
이덕심 이명자 이명희 이애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음전
이제순 이현아 임난향 임영자
장신자 장옥자 장재분 정숙희
정순화 정애화 정영애 정의숙
정정숙 정진녀 정형심 조순희
주장애 최장희 한경숙 황순화
황영숙

· 신임(여집사)

김영한 김옥순 김중순 김효순
이미자 이선희 이정수 이향순
정옥련

9-1 교구

· 연임(남집사)

강만호 강희창 권병철 김상호
김영철 김용대 김용도 김용석
김용훈 김원조 김종규 김종완
김종일 김춘민 김현섭 나상열
남기태 노태경 동방용운 박용정
박원규 백재홍 신현길 안원보
오해섭 이규한 이봉희 이상범
이상호 이시화 이영순 이용열
이운복 이호근 임창수 전영복
정무열 정성근 장윤명 정준철
조성제 채종성 최만우 최성철
최안옥 최지윤 최현계 표성배
허정남 홍관희 황선구 황일선

· 신임(남집사)

김기홍 김윤식 박운환

· 연임(여집사)

강병례 강보현 고경숙 광기영
관정옥 김말선 김명순 김명자
김봉선 김사분 김숙희 김순곤
김순애 김신자 김영애 김영옥

김은미 김은숙 김인한 김정란
김정애 김정희 김정희 김준희
김중숙 김지련 김진자 김판순
김한원 김혜선 남매자 마봉희
민병옥 민영기 박명순 박복순
박숙엽 박애리 박영진 박영희
박옥림 배옥순 서계실 손복희
송숙자 송희명 신은소 신인순
신춘자 안숙영 안영자 안월성
안정인 여성희 윤선주 윤현숙
윤희순 이강분 이경여 이경희
이귀례 이명용 이상남 이성옥
이순희 이옥숙 이원숙 이은자
이화자 이현남 이현주 이희자
임선영 임수자 장세복 장옥자
장화숙 정영숙 정옥영 정정자
정정희 조순덕 조현숙 지기숙
최태옥 한화선 허혜균 현송순
홍금숙 홍신자 홍희숙

· 신임(여집사)

김정순 박선미 송순자 송의윤
신경전 왕유남 이상순 정명주

9-2 교구

· 연임(남집사)

강석운 강영철 고한석 김봉중
김차철 남용승 박명수 배호남
백종현 손기현 손정오 양남구
유익현 유충곤 윤선기 이규선
이정훈 이종문 임세규 장영창
전성옥 정병익 정영호 정태수
정태영 정현철 차기풍 최주환
한일연

· 신임(남집사)

김승국 김형수 김희준 문병형
양정현 윤학진 정건용 정재용
최원창

· 연임(여집사)

강진환 권영자 길봉재 김말순
김송자 김수영 김순련 김순자
김순자 김송애 김영옥 김은나
김은덕 김조항 김충선 김행복
박미숙 박순도 박정숙 변정자
서경순 송금옥 신주영 신춘희
심영숙 안경자 연화숙 원영숙
유명숙 유주옥 윤명숙 윤명자
이경임 이귀남 이귀례 이길자
이순자 이모목 이윤자 이점례
이정분 이희표 임정순 장삼순
장순자 전예순 정경옥 정규덕
정금연 정옥익 정학순 정화숙
조경숙 조명자 차봉순 최광숙
최귀순 최명옥 최순길 최정영
함순려

· 신임(여집사)

김순옥 김진주 남상숙 백길자
유은경 조영근

10-1 교구

· 연임(남집사)

권혁진 김광영 김규종 김상득
김상련 김성근 김영길 김윤환
김인혁 김일교 김장호 김종홍
김주원 김태연 마숙진 문득만
박인기 서형석 송석근 안노수
양복동 오세길 오영희 이교영
이 근 이의용 이홍우 임태택
정도원 정필걸 최봉환 추병창

하유복 홍성옥

· 신임(남집사)

곽홍문 김기현 김진택 양창식
여명수 오귀찬 이길순 이형근
정철석 정철성 지성철 한용배

· 연임(여집사)

구수희 구옥자 구정희 김동화
김명화 김미애 김성녀 김세자
김숙희 김순자 김안주 김영미
김영숙 김영자 김월분 김정실
김정환 김천순 노재희 도수자
명춘란 모미애 박은주 박자화
배순명 변윤진 서인순 선병만
손학선 송금섭 안정자 오덕수
오영선 오정남 오준분 왕복남
왕진숙 우정자 유묘종 유서규
유은옥 유정자 윤신자 이경자
이복연 이상춘 이인성 이홍옥
이희순 임병계 임인순 전순희
정길례 정애순 정윤아 정정근
조추자 지은자 최경순 최상여
한성숙 함운자 홍순이

· 신임(여집사)

김경옥 김명순 김선미 김혜경
박순천 박정심 박혜숙 백준택
서봉순 양순자 이경임 이구선
이영희 이주연 정명숙 정순옥
정점돌 최옥희

10-2 교구

· 연임(남집사)

구창희 권영신 권오명 김근호
김덕만 김동삼 김민구 김성주
김월성 김경호 박득실 박상철
박용기 박종천 백남재 백용옥
변영민 서대식 서석태 설명동
송두섭 신동석 안 국 안성호
엄종배 유성열 윤 배 윤종국
윤주현 이동희 이상복 이상용
이성남 이신동 이원흡 이인광
이인영 이종성 이종현 이진국
이창권 이철호 이철화 이평희
임용광 장지관 전계식 정일섭
정정일 정조영 정중현 조경백
조증광 조증덕 조준민 한종택
홍탁성 황민성 황일호

· 신임(남집사)

권영주 김중환 김형동 서정권
설규동 윤용현 전용동

· 연임(여집사)

강관순 강순자 강영미 강영애
경명옥 고정위 김경운 김경희
김광혜 김순옥 김연식 김영균
김영숙 김영혜 김유희 김은숙
김재순 김정은 김정자 김종녀
김종수 김준남 김중순 김지현
김형숙 김형숙 라종예 문점예
민행님 박경희 박남분 박영숙
박정애 배귀녀 배은희 서순직
서영님 서정희 송춘임 신영희
신옥자 신희순 안향숙 연예순
윤홍자 이경자 이계문 이기에
이남희 이명균 이미숙 이선숙
이성실 이애자 이연실 이영자
이원화 이인숙 이정자 이종희
이중영 이한순 임도화 임현진
장경옥 장명숙 장정숙 장화숙
전영아 전정자 정경애 정미순

조중선 채명혜 최경애 최경희
최귀훈 최복순 최순혜 최영애
최영애 최영옥 최영희 최정화
최재희 한금례 한금자 한옥봉
허용순 황금분 황은선

· 신임(여집사)

권순희 금옥연 김재남 남순임
박명자 박영선 서미미 심보섭
최재영 황순자

11-1 교구

· 연임(남집사)

강석인 강신호 권영일 권인행
김규대 김규석 김동엽 김병익
김상길 김연태 김영길 김용숙
김이철 김익태 김재윤 김정경
김종권 김종성 김중천 김태호
김홍우 나종원 박광식 박규철
박노봉 박범익 박병덕 박영기
백제성 변인식 송영상 신용한
안성영 오근영 윤병조 윤영모
윤장원 이계옥 이구연 이남복
이덕영 이명진 이병두 이석재
이선우 이영표 이우성 이정기
이종훈 이준건 이현규 임덕일
전세중 전태영 정관용 정관이
정제명 정효석 조용수 최기홍
최홍식 표왕열 한영태 한홍연

· 신임(남집사)

고재선 곽홍문 권오순 김광호
김동의 김세종 신철우 이기숙
이영균 한석주 황교천

· 연임(여집사)

강동화 강수자 강순희 강영자
강인에 강춘희 고숙기 고효영
공인화 권복순 권영남 권영주
길인숙 김경애 김길자 김남희
김남희 김두순 김미열 김복순
김복임 김복희 김복희 김석영
김수자 김숙자 김숙자 김순임
김순희 김신자 김아진 김영남
김영하 김유자 김자애 김재숙
김정연 김정화 김지선 김차금
김희중 박선희 박영옥 박영자
박옥춘 박용숙 박재경 박점순
박종숙 박현숙 박현주 박효순
백영주 백옥자 변예선 서기순
서삼옥 손정애 심영숙 양명자
양순덕 양옥자 엄선자 여신자
오세은 오순자 원경희 유순녀
유필례 윤금자 윤송죽 윤익열
이길자 이명숙 이묘남 이복희
이순애 이승연 이양현 이영순
이옥자 이인순 이정옥 이정옥
이진자 이춘화 이홍순 임복덕
장명자 장세정 장유진 정상화
정옥점 정원남 정윤신 조연이
조영자 천상순 천이자 최수애
탁경미 한성실 한외조 허건오
황선혜

· 신임(여집사)

강순용 광경숙 김윤주 김복덕
김옥경 김정환 박화자 손희식
안수자 윤애순 이영숙 이진순
장혜경 정남이 조균실 차영신
최경자 황순란

11-2 교구

· 연임(남집사)

강태옥 고제승 금호탁 기중선
김병수 김상기 김신원 김연근
김연준 김영국 김영효 김재수
김진엽 김태식 문경안 문영규
민태영 박래춘 박문태 박승길
박시준 박일태 박진근 백정현
송한천 신수남 윤석민 이동옥
이명제 이범무 이상태 이연규
이용현 이상룡 이정호 이 홍
정상구 정상수 정상주 정윤환
정유채 정은식 조하문 최승철
최용길 추교천 한만교 한용택
한종남 허판영 홍석강

· 신임(남집사)

김재호 김지찬 류인근 박충근
이문영 이회국 전돈석 정달영
정영제 조동식 차상우

· 연임(여집사)

고경숙 고영해 기인양 김남순
김문자 김미자 김미혜 김복순
김부예 김삼자 김선희 김순은
김영미 김영복 김영옥 김의숙
김용숙 김윤희 김은숙 김인덕
김정숙 김정순 김정옥 김정옥
김춘숙 김혜경 남인희 남혜숙
문인숙 박경자 박영순 박영해
박치정 백광빈 변경심 변은순
서윤숙 소재숙 손소영 손옥희
손일생 송정배 신정임 양명옥
염영애 오경희 유길자 유현정
윤미숙 윤정식 윤진숙 윤행희
이경숙 이국표 이금순 이명숙
이민자 이상순 이선옥 이수자
이숙영 이순기 이은희 이인선
이자경 이정미 이정희 이춘자
이현주 이화자 이희숙 이희자
이희주 임복순 임삼례 임양자
장남희 장순태 전영희 정선화
정성자 조옥주 조춘옥 지순애
최상근 최영덕 최영숙 최영이
최원희 최은경 최정숙 한명희
한순희 홍기완 홍삼화

· 신임(여집사)

강은숙 김근자 김명숙 김정에
김효정 서은자 신정순 이명순
이순영 이정은 임연화 주혜연
최순애 황춘기

12-1 교구

· 연임(남집사)

강진택 강충열 공병식 구자승
김낙균 김병권 김선구 김성수
김신후 김영준 김장영 김재경
김택선 김형곤 김희재 남승탁
마종태 민조식 박순호 박우현
박종진 백 남 변관재 변영환
성백우 신덕일 신언길 윤종필
이덕희 이삼연 이성근 이성실
이재항 이정은 이종성 이찬세
이창희 임삼근 장석두 정갑생
정문호 정영래 정진 조신옥
조영철 천원복 최용익 홍원석
홍홍기

· 신임(남집사)

강창근 김경섭 김성동 박기용
박윤철 신희섭 양승복 유신오
윤세택 이규행 이상국 이용로
허갑영 현준봉 홍영표

· 연임(여집사)

강수연 강현희 고묘자 공돌옥
박숙단 구유진 구현숙 권종순
김경복 김계자 김광순 김국강
김규정 김동금 김명도 김명옥
김순남 김순영 김순희 김영숙
김영희 김옥분 김윤희 김춘호
김충자 김필나 남상인 박경희
박귀원 박연자 박영순 박옥희
백덕임 백인복 백정숙 변금순
송정희 신성자 신은자 안옥남
안희희 유옥자 윤애영 윤인순
이경자 이경자 이민숙 이양래
이영숙 이은복 이정덕 이창숙
이현진 장옥순 전옥희 전정우
정금선 정금자 정정임 정정해
진경애 진영순 천월순 천현애
최계순 최애숙 최양옥 최영선
최요순 한미원 한정숙

· 신임(여집사)

김단순 문하숙 박옥자 박홍란
이미숙 임은미 임진숙 정순애
최선자 한동열 한월순 홍의숙

12-2 교구

· 연임(남집사)

권무용 김강태 김광호 김길선
김동안 김만중 김병문 김영수
김은수 김재윤 김재홍 김정래
김준호 김현곤 김항진 류시태
문승길 박문선 박원규 박춘만
방 익 배현수 서순석 서철호
설익철 손윤익 신광식 신문진
안덕호 안용현 안장동 오성진
유국현 유복노 유옥준 유현동

윤상철 윤훈중 이계혁 이광국
이광호 이기용 이기춘 이도일
이산영 이수일 이예경 이용현
이재욱 이재환 이정근 이종갑
이종훈 이창우 이형수 임영조
장덕한 장영수 장윤균 전인한
정내영 정래부 정부조 정선현
정재복 정창원 정현선 조승철
최종순 최희진 한경선 한병원
한석연 한용호 한준원 허정호
홍만운 홍성철 홍종국 홍찬영

· 신임(남집사)

김홍식 박우정 오정훈 유인규
이만석 최장길

· 연임(여집사)

강계순 강민경 강옥자 강춘희
강학조 강호임 고현숙 구영자
권정순 김경자 김경희 김명자
김성숙 김순남 김순실 김순중
김영매 김영주 김영파 김영화
김은영 김인단 김정자 김종남
김청순 김필숙 김화순 나순희
남명숙 남영덕 민민옥 박부미
박삼순 박숙희 박종은 박천래
박하영 박현숙 방군자 방소애
봉경숙 서정애 서정옥 성미선
성점요 신순덕 신순희 신진숙
신혜숙 신혜진 심정례 안상숙
안종순 양백주 양승남 양승자
양영숙 오수옥 오윤숙 오인숙
오정자 오천자 우영희 유병금
유상순 유현자 이경숙 이경자
이길자 이득자 이문표 이상관
이상금 이성숙 이숙희 이애자
이옥녀 이윤복 이정숙 이준희

이현주 인정옥 임숙자 임정자
임창순 장의경 장정자 장혜숙
전경금 정운애 정현자 조경자
조명자 조인옥 주선영 진명화
진시조 차정호 최경숙 최성자
최성자 최영순 최영희 최정순
최현숙 최호삼 최희숙 추정화
한경분 한경학 한필양 허은희
현경남 현명희 황은미

· 신임(여집사)

김혜원 김희수 박일심 신현주
이경순 이희숙 임정희 장지호
최은영 홍현숙

13-1 교구

· 연임(남집사)

강태주 고건일 고근하 김규식
김명철 김민채 김영호 김원봉
김을필 김희수 김정길 김태호
김형태 남명선 박근엽 박두영
박만홍 박운택 박은준 박태진
변영배 서두현 서태순 손동기
손정익 송병열 송태련 신민석
양국석 우종근 윤명범 윤상언
이기옥 이성섭 이양선 이영식
이의석 이정기 이정섭 이진규
이창영 인대진 정청길 조성래
주희순 채홍표 최만엽 최영하
한석봉

· 신임(남집사)

문윤수 이만영 이영만

· 연임(여집사)

구혜경 권명숙 김경희 김말수

김명숙 김미란 김봉순 김삼순
김순옥 김순일 김순자 김영숙
김의숙 김정순 김정화 김지남
김해진 김효영 남우순 노효영
노승애 마정옥 문영남 민병일
박은숙 박종화 변해숙 손예숙
송선일 심복수 심일남 양영자
연경애 왕인숙 유명자 유정선
윤종수 이금복 이능이 이미애
이순옥 이영자 이의섭 이정애
이현혜 이현옥 이해숙 이해자
이화엽 임용재 장민화 장선복
장수인 장정애 장정자 장해자
정경희 정성숙 정윤원 정정애
정혜원 정효운 조순혜 조임선
조자순 조정에 천태숙 최금실
최신란 최영옥 최옥숙 최정심
최정일 최혜옥 하미숙 홍연래
황방자 황영림

· 신임(여집사)

김영희 윤마리아 이경순 이미화
이옥자 이진모 황경자

13-2 교구

· 연임(남집사)

강석순 고준희 구성혁 김낙홍
김병수 김성구 김성태 김영수
김종섭 김창권 김춘배 김필수
문우식 박명근 박상패 박수연
박원영 박치용 서한승 성만주
성백중 송인섭 송홍주 안진태
엄창근 오경록 오효근 이구상
이봉주 이승구 이영민 이은희
이호성 임낙준 임병준 정승진
조철주 최강진 최정길 허만선

허성국 홍인수 황정길

· 신임(남집사)

권현실 류동원 신태홍 오성철

· 연임(여집사)

강봉순 고병애 구명숙 권영자
권필순 김명옥 김애리 김영임
김영희 김정남 김정숙 김정순
김정순 노명순 문인숙 문현옥
민인순 박미서 박미혜 박소연
박영순 백영옥 백은실 백희연
서덕순 선화성 성명효 성향록
심영보 안명자 안선자 양은숙
엄계월 엄진이 오순자 은영선
이신영 이영순 이원희 이음전
이장은 이정순 이현미 임미자
임정남 전옥이 정금순 정순근
정순옥 지인숙 진화자 최규원
최영순 최애순 최정현 최혜숙
함명순 홍가신 홍문숙 황승기

· 신임(여집사)

김점남 김춘자 박경혜 박학선
손명희 조국심 조복연 주삼덕
최순경

14 교구

· 신임(남집사)

LAVINA EINSTEIN
REINHARDT RUSTY

· 신임(여집사)

LAVINA ALICE
REINHARDT SUSAN

1995년도 구역권찰 명단

· 1-1 교구

김경희 김애란 김영옥 김지영
박순숙 박영숙 이숙희 이용우
이경자 정부순 최경심 최지순

· 1-2 교구

고영자 고춘대 김영미 김윤선
김은옥 김춘자 김해선 박정아
윤선자 이경임 이계향 전진현
지남순 최성분 최현숙 황정미

· 2-1 교구

서정숙 우병희 유금선 이명희

· 2-2 교구

김영희 김정자 김해숙 김현경
김화자 김희성 박미애 박순희
방영미 서영이 정미순 최문실

· 3-1 교구

강명희 권혜석 김미영 김미자
김애경 김진남 독고정숙 박병순
박숙자 박정자 안선희 안인자
오정혜 옥행자 이봉수 이연희
임학신 조은정

· 3-2 교구

강호정 김정숙 박송림 송원자
심경남 원정희 이경자 이행숙
이 화 정애자 주정심 최말련
최영화 하영금 허종숙

· 4-1 교구

구명남 김연미 박순복 서진주
신숙희 신혜옥 윤경자 윤명숙
윤숙자 이순현 이현실 조윤숙

· 4-2 교구

강홍업 김수정 김인숙 서수석
오계순 유혜숙 이연희 임선영
정영자 황양자

· 5-1 교구

김선희 김성애 김향자 김효분
남윤주 손선례 송미향 양영애
이소정 이호순

· 5-2 교구

김동순 김은숙 김용애 김효은
박인숙 박태성 양재숙 이동순
이미경 이호숙 임희영 진옥란

· 6-1 교구

공태분 김미경 박초월 윤미경
이해숙 임유미 정연희 최경재

· 6-2 교구

김예숙 김용주 김은주 양영숙
천은송 한정화

· 7-1 교구

강남실 기정임 김덕숙 김순옥

· 7-2 교구

강운재 김애금 마미화 이덕화
조영미 홍원희

· 8-1 교구

고명옥 김미화 김은숙 문정옥
윤정혜 이경륜 이정애

· 8-2 교구

공은순 김정화 박영순 심금남
여선애 오혜옥 우은미 최수경

· 9-1 교구

· 9-2 교구

강춘애 고인순 권승미 김영아
남귀숙 류근주 박수경 박순이
성정애 안선희 오수희 이경숙
이윤숙 임경숙 전문희 최명남
최유진 한주연

· 10-1 교구

노재량 고성숙 권혜경 김추실
손이지 안희영 이정숙 정영숙
정태순

· 10-2 교구

김경아 라경옥 성유경 유향숙
지숙자

· 11-1 교구

김병란 김복량 김이강 김정란
김정순 김정원 오명숙 오현수
유용숙 이경란 이승주 최현자
허준화 황이지 황정미

· 11-2 교구

김혜숙 신을식 유재원 이정숙
이필순 정숙자 차정희 황 향
윤영희

· 12-1 교구

박영란 김선전 김순애 김은희
박진의 신은수 오경숙 오정희
이연상 임효선 정문경 홍성희

· 12-2 교구

강희자 김경숙 김순자 김진숙
남상갑 박경숙 박영희 박준현
송명순 장 항 정인순 최낙희
최영랑 표경숙 한미순 황원길

· 13-1 교구

노미태 장혜남 최인자

· 13-2 교구

김성자 서금순 오은주 윤영아
이순덕 이영미 이희주 함진옥

은퇴자 및 근속 포상자 선정

지난 11월 16일(수) 임시 당회에서
의의가 있으면 사무국에 신청하기를

지난 11월 16일(수) 임시 당회에서는 94년 12월로 만 70세가 되어 은퇴하는 권사와 동일 직분 장기근속 포상자를 선정했다.

권사 은퇴자는 28명, 장기근속 포상자는 25년 근속 1명(집사), 20년 근속 3명(권사 1명, 집사 2명), 15년 근속 59명(장로 4명, 권사 12명, 집사 43명), 10년 근속 174명(안수집사 9명, 권사 3명, 집사 133명)으로 금년도 12월 기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모두 237명이다.

각 직분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자신의 이름이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은퇴자 명단

· 여권사

강유점 계순옥 국경애 권인숙 김매너
김종순 박순자 백금순 서상옥 성복순
송형섭 신금녀 원도화 원형신 유분홍
유정수 윤영애 이대실 이복음 이순천
이옥숙 임봉옥 장사열 정양래 조계진
조말래 최화순 한춘실

근속자 명단

· 25년

집사 / 한일연

· 20년

권사 / 이순근

집사 / 김정경 하복용

· 15년

장로 / 김경철 우기전 손동운
노광현

권사 / 강유점 공향조 김동옥
김 순 김옥래 신영순
윤재춘 이보영 장기옥
정춘수 최경복 최영호

집사 / 고제승 김경식 김규태
김학래 민혜영 박병택
박원규 송영주 이재옥
이정훈 지영일 정명옥
고순산 고영해 공순자
구정희 김명자 김복자
김순자 김옥분 김은순
김의숙 김정애 남상인
도성희 마경자 문점애
박순남 박순명 박정애
박진민 박길녀 서귀순
서영남 신인순 신춘희
안숙자 양명자 오윤자
유일옥 유혜숙 윤정희
이명숙

· 10년

안수집사 / 남남조 김종연 김환기

권사 /

전남일 전재룡 전홍렬
주원홍 황영일 주열호
강보길 고금자 김복임
김석운 김순동 남수현
노 반 박복실 박영신
박진엽 서영자 성학기
신일순 안춘진 안테레
이도영 이숙화 이종숙
임옥순 장경순 장성혜
전계화 정명섭 정우남
정채금 조덕순 최경상
최봉순 최 순 최화순

집사 /

강영철 강희창 권영신
권인행 김도훈 김동엽
김상호 김선일 김성길
김용도 김재윤 김종원
김주원 남용승 남은균
박순규 박용기 박종규
백종석 오수호 유상태
유성남 이승계 이용현
이인영 이찬세 이홍우
임영조 장세훈 장충균
전영복 정선현 정원근
정재복 정청길 정래명
조병옥 조성래 조승철
주희순 진학래 한경선
한경수 한운석 허성국
홍인숙 강명숙 강병래
강순자 강영자 강학조
고경숙 구수희 권기순
권영재 김경희 김미연
김미혜 김분연 김숙희
김숙희 김숙희 김순옥
김승애 김아진 김영숙
김은나 김인옥 김정단
김정순 김정연 김종순
김준남 김중숙 김형숙
문인자 박애희 박차화
박천래 박춘옥 박태남
박현숙 백숙현 백옥실

변경심 변옥희 서순적
선화성 손유비 송금섭
송정배 송정순 심인주
안영자 안월성 안태숙
원경희 유화자 윤남순
이달순 이선숙 이성장
이성실 이현진 이혜숙
임선영 장신자 장정애
장정훈 전순순 전옥이
정상순 정 상 정선화
정순봉 정순자 정영래
정영희 조복순 조영혜
전주연 최계순 최길자
최선옥 최수애 최요순
최태희 한금자 한명희
한미원 허용순 홍옥래
홍인숙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얻게 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세월의 무상함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의 새싹은 생명의 위대함을, 여름의 이슬거리는 피약벌은 구슬같은 맘을 흘리며 애쓰는 농부들의 수고를, 열매 맺는 가을의 추수를 통하여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겨울, 만물이 얼어붙고 생명이 중단되는 겨울에는 인생의 종말을 생각해 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준비를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겨울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11월 들어서인지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던 날, '천사의 집' 식구들과 청년부 지체들은 자연농원으로 향했다. 서울을 지나 용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본 단풍잎들의 아름다운 자태는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아, 뇌성마비, 무의탁 노인, 정박아인 '천사의 집' 식구들을 우리 지체들은 휠체어에 나누어 태우고 자연농원 입구에 섰다.

목사님을 주축으로 하여 행선지를 정하는데 제일 먼저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대로 우리 식당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천사의 집' 식구들의 맑게 웃는 웃음 속에서 물 한모금도 절거움으로 다가왔다.

식사 후 우리는 자연농원에 있는 놀이기구들 중 회전목마, 춤추는 비행기, 지구마을, 나는 코끼리, 동물가족동산, 왜일드, 파파리를 타고 보았다. 그러는 동안 휠체어를 끌고 다니러니 힘이 들고 고개를 올라가는 길에선 구경은 사람들과 부딪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천사의 집' 식구들의 즐거워하는 미소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천사의 집'을

1년전에 세워 운영을 하고 계시는 홍승만 집사님께 몇 가지 알아 본 바로는 수색쪽에 위치한 '천사의 집'은 현재 인원이 17명으로 고아와 뇌성마비, 활동하기 어려운 무의탁 노인, 정박아로 연령층이

84에서 2살까지 고령 연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현재 집사님은 유유배달을 하며 한달 수입 80 - 9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천사의 집'을 운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천사의 집 식구들과 함께한 사람들

김 지 은(청년부)



집사님의 딸이 어려서 교통사고로 정박아가 된 뒤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던 차, 지금의 '천사의 집'이 있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17살인 딸 홍 유미는 지금 국민학교 3년 정도라고 하며 주님의 계획이 있기에 기쁨으로 생활하려고 하며 기도로 노력한다는 집사님의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

지금 현재 '천사의 집'에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안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청년들의 손길이다. 나는 집사님이 야말로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청지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교회로 돌아와 저녁을 함께 먹고 장난꾸러기 6살 때 꼬마친구 철민이를 돌려보냈다. 차 안에서 손을 흔들던 대 꼬마친구 철민이의 목소리가 아직 생생하게 들려온다. "누나 다음에 또 만나라. 누나 다음에 또 만나라." 내가 이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주님께 고개 숙이며 오늘 수고한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목사님께,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본을 보아신 홍 집사님과 함께 한 '천사의 집' 식구들의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 자연농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토막소식

◆ 찬양위원회는 성탄축하 '메시야' 연합찬양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와 주일 저녁찬양예배 후 오후 6시부터 각 파트별 연습과 전체 찬양연습 등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12월 23일(금)에 연주할 예정.

◆ 영아부는 지난주에 이어 십계명 외우기 대회 본선을 치른다.

◆ 유치부는 성경이야기대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입상자를 내었다.

· 최우수 : 이승훈(열 25)
· 1등 : 박영준(열 25), 이상우(꽃 2)
· 2등 : 정하은(열 22), 김문정(열 12), 이다솔(꽃 20), 장영수(꽃 5)
· 장려 : 임혜정(열 17), 이지현(열 8), 최재석(꽃 14), 조혜영(꽃 3)

◆ 초등1부는 오늘 성경이야기대회 예선을 치루고 27일(다음주) 본선을 치른다. 이야기대회 제목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3가지이다.

◆ 초등4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과일을 모아서 고아원에 보낼 예정이다.

◆ 초등6부는 오전 8시 50분부터 시작됨에 따라 분반공부를 먼저 한 후 예배를 드라기로 했다. 따라서 분반공부 장소도 대폭 바뀌었다.

◆ 중등1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과일바구니 꾸미기 대회를 실시한다. 준비된 과일바구니를 교육관 314호 앞 복도에 전열해 놓고 대회를 한다. 다음 주일에는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운 공

과를 중심으로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 중등2부는 다음 주일(27일), 사도행전 전체를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 중등3부는 다음주(27일) 학부모 초청 기도회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교육관 507호실에서 갖는다.

◆ 고등부는 먼러회 총회를 앞두고 예배 후 몇번에 나누어 회장·부회장 후보자들의 의견 발표 시간을 갖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선교관 지

에바다부 개교 6주년 기념 제3회 수화찬양제

교회학교 에바다부(부장 문흥구 장로)는 개교 6주년을 맞으면서 11월 20일(오늘), 갈릴리홀에서 오후 3시에 제3회 수화찬양제를 갖는다.

청각장애자를 대상으로 모이는 에바다부는 학생으로부터 성인까지 대부분 함께 모인다. 따라서 자체에서 이를 조정하여 오전 9시에는 학생반, 오후 1시에는 성인반 집회를 갖고 오전 11시에는 본당에서 수화통역을 통해서 III부 예배를 일반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있다.

이번 수화찬양제는 세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수화찬양과 성극 뮤지컬, 다함께 하는 수화찬양과 말씀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김창인 목사 :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사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 신성종 목사 : 21일(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남북통일 대책위원회, 22일(화) 서울장로회 신학교 예배설교, 23일(수) 한양 기독교실업인회 특강
2. 중현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건강과 참된 믿음을 주시사 날마다 감사의 생활,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3. 새롭게 개편된 교구와 교회학교, 각 기관이 말씀 위에 서서 부흥하게 하시며 95년도 계획을 잘 수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4.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이 믿음과 통찰력과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국정을 다스리게 하옵시고 이 땅에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5. 해외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와 그 가족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사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 2층 메추라기홀에서 김영길 박사(한동대 총장, 창조과학회 회장역임)를 모시고 수험생들에 대한 특별강의를 갖는다.

◆ 대학부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메추라기홀에서 열린 기도회가 실시되고 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청년 1부는 매주 수요일 수요일 1부 예배 후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

◆ 청년 2부는 그동안 집회시간에 들은 로마서 말씀을 범위로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가진다.

◆ 장년2부는 다음 주일(27일), 빌립보서 4장을 범위로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 장년3부는 제3차 부흥기간을 11월 15일 ~ 12월 25일까지로 정하고 60대 이상의 성도들을 인도하는데 애쓰고 있다. 12월 4일 이사야서 전장과 로마서 1~6장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 사랑부는 사랑부 차장을 윤전하여 줄 선생님을 찾고 있다.

◆ 소망부는 오늘 개교 20주년을 맞으며 기념예배를 드린다. 다음 주일에 전도서 7:1-14를 범위로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중동회교권 선교사로 파송받으며



마치 거대한 총현선이 오래 정박하고 있다가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출발의 고동소리를 듣는 듯, 침묵하고 있던 거인이 다시 일어서는 듯 하였습니다.

높으신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파송예배를 내려다 보심을 느끼면서 답사에 임합니다. 북방선교와 회교권 선교의 과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현실로 다가서지 않는 정말 무거운 일이었습니니다. 누구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내로서 기다리며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밤 개도회 때에 두 가지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중국 길림성신학원의 허락과 북방선교의 가능성 그 소식을 접했기에 감격했던 제 마음과 오늘 선교사파송 예식에 봉화를 올린 듯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찬송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앞으로 할 일들이 조급스럽고 전장되어 심사숙고해야 하는 목직할 과업이지만 오랜동안 기도해오던 중현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성도들의 얼굴에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코신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선교지를 따라보는 제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명령인 선교를 위해서 순종하려 할 때에 현실

이 불확실하고 많은 주위의 난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체득하는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과 선교위원회 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큰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치 거대한 총현선이 오래 정박하고 있다가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출발의 고동소리를 듣는 듯, 침묵하고 있던 거인이 다시 일어서는 듯 하였습니다.

중동의 아랍 회교권으로 떠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져옵니다.

동양과 유럽 중동아시아를 연결했던 실크로드(The Silk Road)가 복음길(The Gospel Road)로 변하여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에 통로를 열어 북방땅을 통과하여 중현의 넓은 광야를 지나 동토 시베리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이스라엘의 감람산을 향하여 올 때면 앞서간 선배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아랍 회교도의 가까운 마을에서 등 밝히고 서서 맞이하게 하옵소서. 본 교회를 섬긴 10개월의 기간이 짧았지만 뒤돌아 보면 은혜 받은 것 뿐입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느라 몸을 돌보실 겨를도 없이 동분서주하시는 중에 서도 선교의 궁극적 비전을 계속 진단하시며 개인적으로도 세밀한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당회장 목사님, 67세의 연세에도 최선을 다해 몸이 상하실 정도로 정성을 기울여 주셨던 전 선교위원장 허대선 장로님과 선교 위원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모든 부분을 협조해주신 상근 장로님들과 직원들, 청렴하시고 순교자적인 단호하신 성품을 이마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원로 목사님, 세상의 화려한 유혹을 일찍이 뒤로하고 온 젊음을 바쳐 열심히 뛰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역자로서의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던 동역자 목사님들과 여전도사님들, 본 교회의 웅장함과 잘 구비된 내부를 볼 때마다 40여 성상 한 목자에게 절대 충성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단합된 힘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대표적인 교회를 이룩하여 그 무한한 저력을 상기시켜주는 당회와 장로님들과 중현의 성도님들, 공명선거를 치루어낸 우리 교단, 앞서서 발전해가는 총회 선교부의 편모들, 부족한 중이 섬기면 현대교회, 대수동교회, 진정교회들은 모두께 매진한 중의 제행이며 배경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할 따릅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교단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회교권 선교를 위하여 노력, 애매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거절해 보이는 아랍나라에 새는 자신을 보며 장해일축이라 큰 배타주의 작은 좁쌀알갱이 같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행도만한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하셨던 것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이땅나라 로마 셋집에서 기도하며 복음

을 전했던 위대한 선배 선교사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열정을 생각하면서 선교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있게 전할 수 있도록 아랍어 습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사랑 깊은 기도후원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북방선교의 기쁜 소식과 오늘 파송 예배를 통하여 본 교회가 더욱 세계선교의 전학과 배진이 구체화 되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관적인 특별한총과 원도하심이 본 교회에 계속 되기를 바라며, 답사에 대신합니다.

1994.11.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중현교회 선교사 김 영 대

이 원고는 지난 11월 6일 중동회교권 선교사로 파송받은 김영대 선교사가 파송식에서 한 답사의 내용입니다.(편집자 주)

기도제목

1. 매일 생령충만하여 구령사역 계속되도록
2. 아랍어·영어습득 및 문화적응 철저하도록
3.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동역자·현지인)하도록
4. 교회개혁, 현지목회자 훈련사업에 동참하고 앞장 설매 있도록
5. 온가족 건강위하여
6. 중현교회 부흥위하여
7. 총회부흥 위하여